

지역 소식통

정읍소방서, 한국119소년단 안전 체험교실 운영

정읍소방서는 지난 8일 한국119소년단으로 등록된 정일어린이집에서 입단선 서식 및 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한국119소년단은 매년 수차례의 소방 안전교육을 받으며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배우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한다. 이날은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동영상, 이론 교육, 어린이 방화복 착용, 연기소화기 체험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일선 서장은 "한국119소년단이 앞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체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위의 모범이 되도록 행동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주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산불예방 캠페인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산림청 정읍국립관리소와 함께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산불예방을 위해 방문객들에게 홍보전단지 나눠주고 산불발생사진을 전시하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캠페인 실시 후에는 도립공원 주변 정화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강릉 등에서 일어난 산불에서 보듯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산림의 훼손뿐만 아니라 인명과 재산 등 피해가 막대하므로 산불 발생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중앙지구대, 삼단봉 무도교육

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 중앙지구대(대장 이원호)는 지난 8일 전직원이 모여 있는 인수인계 시간에 경찰무도교육원장(사범 손태경)을 모시고 삼단봉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지구대 자체 무도교육을 실시했다.

경찰법 제3조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외의 예방·진압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무도훈련에서는 3단봉 잡혔을 때, 근접 3단봉 막는 법, 간접 3단봉 받아치기 제압술, 근접 3단봉 받아치기, 3단봉 연행술 만취상태의 주취자를 연행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법 등 총 6개의 동작과 기술을 전수받아 현장에서 안전하게 범인을 제압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기자

안전문화, 지역주민이 이끈다

고창군, 안전문화 정착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군은 각종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 예방하는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안전신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소 개선에 기여하거나, 안전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사람 등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창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라는 휴대 전화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신고하고 해당 기관에서 접수된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해 주민들은 맨홀뚜껑, 도로의 포트홀, 보도블럭 파손 등 일상 생활 속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안전 위해 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군은 안전신문고의 활성화로 통해

주민들이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위해환경 개선 등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며 "안전한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해 행정에서는 신고 된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포상금 지급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전북도민체전 성료

친절·청결·안전한 대회로 평가 받아

부안군이 제54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도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제54회 전북도민체전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축복의 땅 부안에서, 생동하는 전북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역대 어느 대회보다 더 친절·청결·안전한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부안군은 이번 체전을 '친절·

청결·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회 준비에 집중했으며 36개 종목별 경기장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부안군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업주 등에게 친절교육 실시하는 등 성공 개최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부안경찰서 및 부안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수단 및 방문객들의 편의와 안전에 주안점을 뒀다.

이러한 철저한 대회 준비로 3일간의 대회 기간 중에 부안군을 방문한 전북도민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게 대다수의 평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THE 부안처럼, THE 부안같이'를 부안군의 기치로 삼아 도민의 화합과 6만 부안군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의 장이었다"며 "이런 부안군의 향상된 브랜드 이미지가 2017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와 2023 세계잡버리 유치로 이어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전주시가 1위, 익산시가 2위, 군산시가 3위, 개최지인 부안군이 4위를 차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 변산면 예비변호사 김소슬씨, 나누미근농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군 변산면에 거주하는 김소슬 예비변호사는 지난 4일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 개막식에서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예비변호사 김소슬씨는 김성호 변산면 이장협의회장의 장녀로 전남대 로스쿨을 올해 졸업하고 지난 4월 14일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지역 인재이다.

예비 변호사 김소슬씨는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나누미근농장재단 장학제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평소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 시책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던 중 이번에 전남대로부터 입학금 장학금 전액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해 기탁하게 되었다"고 기탁 배경을 설명했다.



나누미근농장재단 김종규 이사장은 "지역의 후배 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장학금 기탁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후배들이 선배를 보며 부안인으로서 자긍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보건소,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고창군 보건소에서 '엄마가 즐거우면 아기도 즐겁다'를 주제로 임산부 건강교실 4주 프로그램을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고창병원 신관 4층에서 진행한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식습득의 기회가 적고 양육기술이 부족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산모와 가족들에게 분만과 모성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고 산전교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건강교실 1주차에는 임신부 명상, 요가, 요통 대비 부종 등을 풀어

주는 요가 아플다운 출산을 위한 산전요가 강좌가 진행되며 2주차는 분만과정과 태아 마사지, 요가 호흡법과 중요성 분만대차법, 분만도움법·힘주기·출산과 산통의 의미, 분만과정의 이해, 태교의 필요성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된다.

3주차에는 산후유증과 베이비 요가로 분만 후 골반저의 변화, 산후 요실금 예방법과 대차법, 산후통의 증상과 대처법, 4주차는 모유수유 동영상, 모유수유의 장점, 수유 자세,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기본 원칙, 유관을 열어주는 마사지 등의 강좌가 마련된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미세먼지 저감대책 적극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군민이 편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전했다.

고창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리적으로 서해안에 위치해 중국발 황사와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가 지역 내로도 유입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소의 40%가 충남 서해안에 몰려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환경부와 전라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발맞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먼지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공중에 퍼지지 않도록 노면청소차량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통합 숲 가꾸기 사업 시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통합 숲 가꾸기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공음면 용수·철암리 일원 90ha 산림에 1억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숲가꾸기(정량간벌) 90ha를 실시하고 이중 7.5ha에 대해서는 산물수집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산림을 유지하고

적정한 임분 밀도를 조절하여 산불예방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나무가 굵고 곧게 자라 산주소득이 증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수월한 양과 대기정화 효과가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산주들이 숲 가꾸기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GOCHANG COUNTY

한국인의 본향 고창, 도깨비가 사랑한 청보리밭!

제14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2017. 4.22(토) ~ 5.14(일) 23일간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